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5.31.(토)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766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동행’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소상공인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경청 투어, 전국 16개 지역 21개 전통시장 현안 청취

- 서울, 경기, 인천, 대전·세종, 충청, 강원, 호남, 영남 등 전국 전통시장 순회 방문 이어져
- 오세희 “장사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 책임 있게 답할 것”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766만 소상공인과의 동행’을 기치로, 5월 12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 전국 16개 지역 21개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소상공인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경청 투어 전통시장 방문은 △경기 수원 못골시장·영동시장·지동시장(5.12),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5.14), △대전 중앙시장·신도꿈지락시장(5.15), △세종 대평시장(5.15), △전북 군산 공설시장·명산시장·전주 서부시장(5.16), △전남 함평 천지전통시장·장흥 토요시장(5.17), △부산진시장(5.22), △서울 관악 신원시장(5.24), △인천 모래내시장(5.26), △강원 강릉 중앙시장·성남시장(5.27),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5.28), △대구 서남신시장(5.30), △충남 공주 산성시장(5.31)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소상공인 경청 투어’는 이재명 후보의 ‘골목골목 경청 투어’의 연장선에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로 진행됐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은 공통적으로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축소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개선, △10년 계약 후 연간 갱신 구조에 따른 불안정한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 시설 보강과 정부 지원 확대, △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화

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재정비, △상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시장 활성화 지원책 마련, △청년 상인의 창업 지원과 청년몰 확대 등 세대교체 기반 마련,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 및 온라인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전국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상인 여러분을 만나 뵙고 나니, 민생과 지역 상권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히 느꼈다”며, “전국의 상인들께서 한목소리로 ‘그저 장사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하신 말씀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이번 전통시장 경청 투어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방문한 시장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가 많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이처럼 신선하고, 저렴하며, 다양한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경청 투어를 통해 들은 제안을 꼼꼼히 살펴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책임 있게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1. 소상공인 경청 투어 ‘전통시장’ 순회 현장 사진

붙임1. 소상공인 경제 투어 ‘전통시장’ 순회 현장 사진



△2025.05.12.(월)수원 못골시장



△2025.05.15.(목) 대전 신도꿈지락시장



△2025.05.16.(금) 군산 명산시장



△2025.05.16.(금) 전주 서부시장



△2025.05.17.(토) 전남 함평 천지통시장



△2025.05.17.(토) 순천 옷장국밥골목



△2025.05.22.(목) 부산 진시장



△2025.05.24.(토) 서울 신원시장



△2025.05.26.(월) 인천 모래내시장



△2025.05.27.(화) 강릉 중앙시장



△2025.05.28.(수) 청주 육거리시장



△2025.05.30.(금) 대구 서남신시장



△2025.05.31.(토) 공주 산성시장 간담회